

욥기

세션 27: 욥기의 신학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신학 27 회입니다.

소개 [00:22-00:48]

이제 우리는 욥기의 신학을 추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징지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들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신학을 함께 짜맞추도록 노력합니다.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견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은 사소하지 않다 [00:48-3:09]

그러니 신이 작다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의 상급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14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아주 아주 깊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전형적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보상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리고 신은 어떻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10년 전에 어떤 작은 경멸에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고 방식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미세한 편차에 대해 설명하라고 무자비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요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염려가 보잘 것 없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염려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3:09-8:02).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반박될 수 없다는 욥의 주장은 그의 초기 확언의 핵심이다(1:21, 2:10). 그러나 그 자리는 욥에게 있어 일시적인 위치에 불과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의 공의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법정에서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권세로 고발합니다. 누가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가 정의의 문제라면 미묘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9:19입니다. 예, 그는 흠없는 사람과 악인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그것은 욥기 9장 22절에서 세 구절 뒤에 나옵니다. 19:7에서 욥은 *미슈파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Mishpat* 는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27:2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쉬파트*를 금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34:5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신이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야 하는 것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공격자, 대적자, 배반자, 무자비한 전사로 고발합니다. 40장 8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욥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대인의 반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세상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가 가져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정의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좌절 속에서 그 실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려면 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결함은 우주가 신의 속성으로 찍혀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실수는 날마다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그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지만 공의가 그 결정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쉽습니다. 그가 공의의 인도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오히려 묘사한 혼돈의 피조물처럼 됩니다.

따라서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질서의 근원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비질서를 나타냅니다. 질서, 비질서, 무질서의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안한 대안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지혜를 반영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질서의 근원이자 중심이지만 비질서나 무질서도 그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작될 수 없다 [8:02-11:00]

욥은 또한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외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31장에 있는 결백의 맹세입니다. 욥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찾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의 균형을 되찾음으로써 일종의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그의 무죄 서약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 지르지 않은 모든 범죄를 열거하고 기본적으로 그가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침묵이 남아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를 죽 이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욥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정당함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암묵적으로 수동적으로 욥을 면죄했을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초기 파멸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복 원칙이

그의 정책을 정의한다면 욥의 명성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성은 상실될

것입니다. 욥기 1장 4-5절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신이 의례적 접근법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느님이 무감각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능한 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헌금, 교회 출석, 예배, 엄격한 기독교

규율 수행 등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혜택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11:00-11:56]

그래서 우리가 욱기에서 얻는 많은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욱의 오류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성향을 인식할 때 나옵니다. 신이시여 그들이 우리 자신의 사고 방식을 특징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 책의 신학은 하나님의 그림을 넘어 고통의 그림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욱기에 나오는 고통의 신학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욱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욱기 신학 27 회입니다. [11:56]